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www.seolbi.com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기 인사발령 단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는 지난 2월 15일자로 대단위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이번 정기 인사발령으로 본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점의 41명이 자리를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찬재 이사장은 “경쟁력 있는 설비공제조합 구축과 2006년 경영 목표인 ‘조합원과 하나되는 조합’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과 재경의 설비업계 동향 파악과 새로운 업무환경 창출 및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외부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근무환경을 전국적으로 순환시키기로 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부 제한된 광역권 범위 내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설비업계의

전국적인 현황 및 경기 추세를 경험해보며 새로운 업무환경 구축 및 더욱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대규모 인사에 의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자 지점장 및 부서장급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각 지점의 안정화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추가 인사발령을 검토중이다.

이찬재 이사장은 “경기의 침체가 전망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설비업계 경영여건의 일조하고자 끊임없는 조합 내 자구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21차 총회(임시)안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정관 제24조(총회)에 의하여 제21차 총회(임시)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 안 건 : 2005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장 소 : 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5-1)
- 참석범위 : 대의원 전원

※ 정관 제26조(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은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합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찬 재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주영업소 오상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의 주인공인 모리 슈워츠 교수는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까지 대학에서 평생 학생을 가르친 노교수였다.

병든 후 쓴 몇몇 글들이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ABC TV의 '나이트라인'에 출연하게 된다.

방송내용의 감동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어느 날 미치도 모리 교수의 방송을 보게 되어 16년만에 제자와 옛 은사의 만남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다.

모리 교수와 미치의 열네 번의 짧은 그들의 마지막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중간중간 호흡을 가다듬으며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루게릭병이라고 알려진 근 위축성 측색 경화증은 척수신경 또는 간뇌의 운동세포가 서서히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이 세포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불명의 불치병으로, 치명적인 신경계통의 질환이며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는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리 교수와 부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은 그날에도 여름의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였다. 세상은 멈춰지지도 않았고 아무 일 없는 듯 잘도 돌아갔다.

일반적으로 다리에서 시작되어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는 루게릭병은 신경을 녹여 몸에 밀납 같은 것이 쌓이게 한다. 허벅지 근육이 제어력을 잃게 되면 자기 힘으로 서있을 수 없게 되고, 몸통근육이 제어력을 잃게 되면 누워서 목에 구멍을 뚫고 튜브로 호흡을 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완벽하게 건강한 정신이 무기력한 몸 속에 갇히게 되어 다가올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리 교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보람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는 죽어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삶이 중심이 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기로 했다.

모리 교수와 방송국과의 인터뷰 내용 중 “천천히 쇠락하는 데 가장 두려운 게 뭘니까?”라는 물음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만 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소”라고 대답하는 부분에서 생명이 다 해가는 병약한 인간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네 번의 강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의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주제는 인생의 의미와 모리 교수의 경험에서 얻은 바에 대하여 교재 없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가르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모리가 화장을 결심하며 한 말은 “나를 너무 오래 태우지 않는지. 자네가 확인해주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모리 교수의 가슴이 뭉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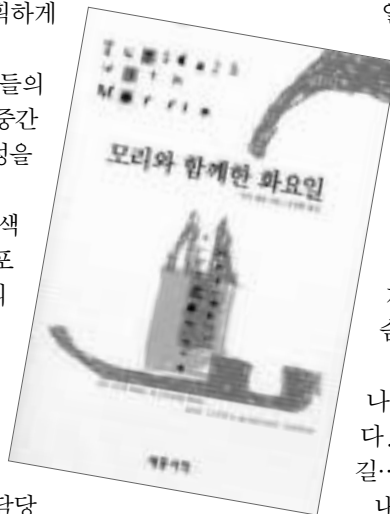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일 뿐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야”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진솔한 내용은 책을 통해 느껴보시길…….)

내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죽음이란 것은 상당한 공포감을 가져다주었다. 더욱이 나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던 분이었기에 그 실망감과 허탈함은 더욱 컸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내가 좀더 어른이었다면 더 많은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그 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다.

소중한 것은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사는 것과 함께 죽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의 의미, 삶을 깨닫는 안목이 필요하다.

삶과 죽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사건이고 자연의 질서라고 생각한다. 때사가 어지러워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거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때 세상을 떠나는 스승과 현실에 남아있는 제자 사이의 감동적인 수업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다시 찾게 될 것 같다.



봄의悲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총무부 박진영

호숫가에 앉아있는 정다운 모습들이
그리고 그 모습들을 눈부시게 하는
호수의 반짝이는 여울이
포근한 햇살보다 더 봄처럼 느껴지는 것은,
호수와 그들의 얼굴은 이제 곧 푸릇해질
세상보다 더 싱그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가 버린 당신인데
당신처럼 완전히 보내지 못한
남겨진 기억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떠난 당신인데,
당신 이름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모퉁이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창문 밖의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
당신 모습 찾으려는 나의 어리석음을
느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어느 하루 너무나 힘이 들었던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당신 생각하는 것이 사치라고 까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에도,
힘든 하루는 역시 당신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간절히 떠오르는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라리 그렇게 떠날 것이었다면
당신 닮은 들꽃 필 때 떠나지
봄에도 말라 버린 나뭇가지는 있는데
시들어 가는 봄날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 것도.....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 정보지 월간 설비건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 설비건설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 설비건설은 본 협회 회원사, 일반건설회사 및 주택사업자, 설비·설계용역회사, 건설관련기관 및 유관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등에 배포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설비건설 전문지입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전국 설비건설업계의 대변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협회 관련소식 및 업계소식, 정부 정책자료, 신기술, 신공법·신자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비건설전문지로서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 더 한층 내실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월간 설비건설에서는 회원사 소식은 물론 기술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시공기술자료, 재해안전 및 개선사례, 하자사례,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뿐만 아니라 수필, 산문 등 장르 구별 없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하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부(전화 02-6240-1151~2, FAX 02-6240-1114 / 서울 강남구 청담2동 45-1 설비건설회관 7층)로 연락 또는 원고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보내드립니다.